

‘부처님 말씀’ 지키는 수호신의 우두머리



불화 속의 명장면 (38·끝)

제석천도(하)

제석님은 전통적으로 우리 선조들에게 어떠한 존재였을까. 조선중기의 고승 서산 대사(1520~1604)가 지어 민간에 크게 유행,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회심곡>에는 ‘제석님께 복(福)을 타고’ 사람은 태어난다고 하여, 제석님은 ‘복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나타나 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넓은 의미로 사람들에게 풍부한 현실 이익을 가져다주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뜻을 지녔다 하겠다.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석님을 모시는 신앙을 그 유래가 매우 깊는데, 백제 무왕이 궁궐을 왕궁평에 옮겨 짓고 그 근처에 제석전을 모시는 제석사를 두어 왕실 및 국가의 안녕을 빌었다 한다. 이러한 제석신앙 전통이 고려시대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고려사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고려시대에도 궁궐 안팎으로 제석원을 두어 정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그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제석전은 부처님의 말씀, 불법(佛法)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팔부중, 금강역사, 사천왕 등 많은 수호신들 중에서도 법전과 짝 이루어 수호신의 우두머리격이다. 그렇기에 그 모습도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

고 무장을 하고 등장하는 여타의 우락부락한 수호신들과는 조금 격이 다르다. 석굴암에 나타나있는 통일신라 제석전의 모습을 보면, 수호신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귀족적인 풍모를 뽐내고 있다. 또 본 작품(그림1)을 비롯하여 조선전기 다수의 제석탱화 및 신중탱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제석전 역시 매우 여성적이면서 우아한 보살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제석전은 ‘도리천’이라는 하늘에서 인간세상을 굽어보는 하늘신인데, 도리천의 사방에는 봉우리가 있고 그곳에 8천(天)씩 모두 32천이 살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주변 32천을 다스리는 제석전까지 합하여 도리천에는 총 33천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도리천을 ‘33천’이라고도 부른다. 그는 도리천에 있는 선견성(善見城)의 선법당(善法堂)에 머무는데, 본 작품에서 제석전이 들고 있는 하늘 부채에는 이 선견성의 모습(그림2)이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선견성과 선법당, 제석전이 머무는 궁전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그는 이곳에서 인간세상의 선행(善行), 착한 행위를 굽어 살피고 악행이 판을 치지 않게 지켜본다.

<장야함경>의 ‘도리천품’에는 ‘매월 15일 사천왕은 몸을 나서서 천하를 돌아보고, 세간의 만백성이 효를 행하는지 불효하는지를 관찰하고, 선법당에 나아가 이를 제석천에게 보고한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고, 부모에게 효하지 않고, 스승과 어른을 존경하지 않고, 재물을 탐지 않고, 빈궁한 이를 돕지 않는다 하면, 이에 천인(天人)의 무리는 감소하고 아수라의 무리가 증가되어 이를 격정한다. 만약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순하고 스승과 어른에게 공경하고, 재물을 부지런히 두고, 가난한 자들에게 보시한다면, 반대로 천인의 무리는 증가하고 아수라의 무리는 감소하여 크게 기뻐한다’라고 쓰여 있다.

제석전은 선을 상징하며, 악을 상징하는 아수라군과 맞서는 것이다. 세상의 악이 줄어들어 제석전이 즐거울 때에는 국토가 안정되고 민심이 불안하지 않고, 반대로 그가 노할 때에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렇게 인간세상에서 악이 늘어나지 않게 단속하는 하늘신이기도 하지만, 제석전은 석가모니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지킴이로서 그 기본적인 임무를 맡고 있다. 물론 불법을 지키는 것은 1차원적으로 말씀이 담긴 경전을 지키는 것, 나아가 그것이 상징하는 진리의 세계·불교의 세계를 지키는 것, 더 나아가 불법으로 통치되는 이 나라를 지키는 호국신앙으로까지 발전한다.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신라 승 홍경이 당나라로부터 대장경을 실어왔는데 왕이 친히 영접하고 대장경은



그림1 : 아름답고도 근엄한 조선전기 제석천의 얼굴, ‘제석천도’ 일본 교토 세이타쿠인(聖壽院) 소장

제석신앙은 백제 무왕을 시작으로 고려시대까지 전승 우리 고유의 ‘天神’으로 전이 민간신화와 결합하기도

제석원에 보관하였다’라고 쓰여 있다. 또 ‘주요 궁궐의 문덕전(文德殿) 및 수문전(修文殿) 등에서 제석도상을 7일 동안 계속 배불었다’라는 기록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들 궁내 관청들은 역대 문서 및 경전들을 보관하고 이를 왕에게 강론하는 곳이었다. 나라의 종교가 불교인 시대에 불법을 지키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호국신앙과 직결되기에, 외적의 간섭과 침입이 빈번했던 고려시대에는 유독 제석도상이 빈번히 행해졌던 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불교경전의 수호신은 중국 명나라 황실의 영향으로 위태로워 바뀌게 된다. 석가모니에게 설법을 하도록 권하여 범천권정(梵天勸正)으로 유명한 범천과 그 자리에서 같이 그 설법을 지킨 제석전, 그리고 후대의 위태천이 더해져 이 세 존상은 모두 불법의 수호신으로, 현재에도 무수히 그려지고 있는 신중탱화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주된 세 존상이기도 하다.

불교의 전래와 더불어 ‘하늘에 제석천이 있다’라

는 신앙은 우리 고유의 천신(天神) 신앙과 결부되게 된다. 국가에서는 환인, 환웅, 단군을 삼성(三聖)으로 모셨는데, 이는 삼신제석 또는 삼불제석으로서 무속에서는 환인제석, 환웅제석, 단군제석으로 불리어졌다. 이는 더 아래로 민간으로 퍼져나가 아기를 점지하고 보호하는 삼신(태신-태를 만드는 신, 산신-아기를 낳게 하는 신, 육신-아기를 기르는 신)으로도 전이되고, 세간에 유행하던 민간신화와도 결합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사람들의 바람에 따라,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염원하는 것에 따라신들은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부여 받는다. 신들도 시대에 맞추어 발전하고 변모하는 것이다. 제석신 역시 전래 이래 옛 사람들의 다양한 소원을 들어주며 그 신앙과 더불어 모습을 변모해왔다. 그 존상은 아직도 사찰의 행랑 속에서는 아름다운 제석신의 모습으로 살아 전승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 겸임교수)

<연재를 마치며> ‘불화 속의 명장면’을 소개하고 싶다는 필자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선뜻 신문 한 지면을 할애해 주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며 가슴 설레어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글을 써 나가면서 독자님들에게 알려드린 것보다 스스로 배운 것이 많았다. 또 글쓰기 방식에 있어서도 더 친절한 글쓰기를 하여야겠다고도 절실히 느꼈다. 이는 것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즉 방편의 묘(妙)를 체득한다는 것은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전문 데이터가 풍부하면 되지만, 나를 위한 글쓰기가 아니라 상대를 위한, 상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글쓰기가 되려면, 우선 인생 공부(인생공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인생 공부는 도서관이나 자료실에서 얻어질리 만무하고 또 시간도 무척 걸린다. 길어가는 거울이다. ‘불’은 태어나고(生), 여름에는 자라나고(長), 가을에는 수확하고(收), 겨울에는 저장한다(藏)고 한다. 계절은 생각보다 항상 한 발 앞서 간다. 이제 모든 것을 안으로 간직하는 계절 겨울이다. 땅의 움직임은 단순한 은근 그 이상을 상징한다. 안으로 자양분을 깊이 숙성시키며 그것을 다시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뿜어 낼 봄날의 빛을 기다리는 것이다. 앞으로 좀 더 안으로 깊이 숙성하되, 다시 독자 여러분과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만나뵙을 새 봄날을 기약한다.



그림2 : 부채 속에서 제석천이 살고 있다는 선견성(善見城) 궁궐이 보이고 그 밑으로는 해와 달이 들고 있다.



그림3 : 섬세한 손으로 부채대를 받치고 있다. 비단 천의 위 구슬 장식이 화려하다.

병고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불자들에게 산삼의 인연을 맺어드리고자 합니다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운 약사여래 도량 선광사는 병고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불자들을 위해 산삼의 인연을 맺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도 일대에서 활동하는 심마니들을 위해 오래 전부터 산삼 감정을 해오고 있으며, 인연 있는 분들에게 산삼을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약사여래도량 선광사 주지 도봉 합장

연락처 : 017-377-0464, 02)886-8655
서울시 관악구 봉천 10동 871-34번지(서울 포교원)
강원도 강릉시 지번동 232-1번지

산삼이란?
●천종(天種)산삼(天種, 眞種)
고산지대의 석류의 특성에 의하여 암력이 높고 바람이 세고 습기가 적고 등등으로 고생고생하며 지렁이로 보듯는 기쁨과 씩씩고 역시 되고 가늘며, 잎의 가지 솟아도 작다. 열매 또한 작으며 속자가 작다. 나무가 가늘고 길며 암혈에서 미가 갑자기 가늘어져 미에 삶이 안붙고 힘이 있어, 예쁘고 귀한 티가 난다.
30년 정도는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 지면 연도에 비해 크기가 작고, 할 리지를 못하며, 제일 커피야 1냥 2-3돈 정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세월이 느껴진다.
오리지널 산삼이란 것이며, 천종(眞種)산삼이란 참으로 귀하며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지상 최고의 식물이 것이다.
●지종산삼(地種)
야생장뇌 산삼에서 씨앗이 떨어져 자라면 지

종이 한 단계 진화하며 야생장뇌에서 1-2대 지 난것이 지종산삼이며, 나무의 굵기가 천종산삼과 야생장뇌의 중간정도이고, 생긴 형태도 중간이다.
●인종, 야생장뇌 산삼(人種)
야생장뇌만 재배장뇌씨가 새둥에 의해 깊은 산으로 옮겨져 자생하는 것으로 생명력이 한 단계 진화하며 오래살 수 있는것. 인삼과 많이 닮았으며, 나무가 두껍고 미에 삶이 없고 귀티가 나지 않는다. 현재 재취되는 산삼의 대부분은 95%이상 야생장뇌 산삼이나 지종산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나 천종(眞種), 지종, 야생장뇌의 어디에 속하는지는 짐작할 필요는 없고 야생산삼이며 년조가 같은 약효는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다. 같은 년조일때 천종(眞種)산삼은 야생장뇌나 지종산삼보다 크기가 작다.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2권>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점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날날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연승,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선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 과 <바로보인 선문연승> 전강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았다.

☎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9중 9포(아홉번 찌고 아홉번 말림)의 약왕사 名品紅蔘

산삼에서 직접 만든 "홍삼 엑기스"

명품홍삼은 약왕사 스님께서 직접 만드는 100%순수 홍삼입니다. 완전 차별화된 최고의 국내산 6년근 수삼을 100일에 걸쳐서 구중구포(아홉번 찌고 아홉번 말림)는 것홍삼과 자기 몸에 발인 자체 홍기삼과 불암산 자정수(감로수)로서 게르마늄탕기에서 전혀 금속에 닿지 않고 저온에서 숙성시켜 최고의 추구하는 홍삼입니다.

면역기능 증진 효과 및 암의 보조요법제로서의 유용성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에 대한 효과
두뇌활동 촉진효과 및 신경세포 보호작용
신체조절기능의 향상성 유지작용
피로회복 및 지구력 증진효과
항암작용과 암예방효과

※이열푸는대 탁월 ※임산부 산후조리에 드시면 요과 탁월
※산발이 꺼리고 뽀니는데 1개월만 드시면 ok

역행사 9중 9포 홍삼엑기스(두달분) 30만원 90ml 60포

◆입금계좌 : 우체국 700963-01-000693(예금주 : 약왕사)
※관내수익금은 약사님 불사에 사용됩니다.

참선 약사기도도량 약왕사
☎ 054) 371-6665, 010-2513-6665